

## 언제나 公職을 떠날 때를 생각하라

公職者는 언제나 자기가 그 직장을 떠날 때를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원망듣지 않고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上司와 틀리지 않고 동료(同僚)와 상하지 않고 部下로부터 멸시를 당하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 않고 깨곳이 俯仰天地를 뉘우침없이 그 자리를 물러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公職에 들어올 때 보다는 公職을 떠날 때가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직에 있을 때 언제나 熱心히 그리고 깨끗하게 일해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아무런 미련없이 떠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다. 내일 떠난다 해도 俯仰天地(俯仰天地)良心에 부끄러움이 없는 公職生活,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公職 그 자리를 萬年 자기 혼자 하라는 법이 없다. 벌써 그만두는 그날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그날을 자기가 알지 못할 뿐이다. 또 알아도 미련이라는 慾心 때문에 조금만 더 해야지 하다가 名譽스럽지 못하게 떠나는 수가 적지 않다. 옛 선비는 公職을 그만두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고 한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公職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後進에게도 길을 터 주어야 한다.

또한 公職者는 그 자리를 떠난 후에 비로소 자기의 모든 것이 사실대로 평가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기왕이면 좋은 評價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깨끗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公職을 떠난 뒤 10年, 20年 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떠난 후 10年, 20年, 자기는 自髮의 老人이 되어 그곳에 왔을 때 내가 10年, 20年 전에 일한 것이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데리고 온 孫子에게 이 할아버지가 저기서 근무할 때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하고 또 敎訓으로 줄 것인가, 이런 점을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평소 勤勉 誠實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일해야 할 것이다.

## 진정한 애국자

참되고 거룩한 뜻으로 애국하려면 조국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끄럼 없는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교회와 양속을 비웃고 무시하는 행위와 조국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두 사실은 절대로 동시에 양립될 수 없는 일, 이는 사랑하는 여인을 예찬하는 자가 사랑의 신의를 지키려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지 않을까?

만약에 남의 거룩한 부부애와 남의 점잖은 품위나 그들의 성실, 정직을 경멸하는 자가 「조국! 애국!」을 부르짖을 때 절대로 그를 믿지 말라. 그는 바로 위선에 가득찬 사이비 애국자이며 또한 가장 추악한 시민의 하나이다.

자신의 모든 의무를 느끼고 사랑하며 의무를 수행하려 노력하려는 덕을 갖추지 않은 자라면 진정한 애국자일 수 없는 법이다. 진정한 애국자는 결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이나 여타의 올바른 권위를 부정하고 곡해, 증오하는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다. 이 같은 노예적인 속성이나 오만불손한 태도는 모두 인간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참된 애국자는 정부나 군부이거나 사회의 어떠한 부문에서 종사하든지 간에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명예에 목적을 두는 것이다.

만약 그가 자유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 열렬한 염원은 기여하는 바를 것이며 누구도 그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끝내는 그의 의도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는 언제나 어떠한 의견에도 그에 반대하여 불화를 야기시키지 아니한다. 오히려 많은 전례와 능숙한 웅변으로 가능한 한 과격한 자들이 중용의 길을 찾도록 하여 항상 너그러운 평화의 옹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는 조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결코 선량한 양이 아니라 무서운 사자가 되어 싸워 이기거나 아니면 장렬한 전사를 영광으로 여기는 자인 것이다. <벨리코>